

한국에서의 러시아 교육 양상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황지숙(서울 여의도고등학교 역사교사)

동아시아 교과서에 러시아 관련 서술 내용

1. 신석기 문화 : 덧무늬 토기 분포 지역
2. 청동기 문화 : 돌널무덤
3. 몽골 제국의 형성 : 킵차크 한국
4.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 의화단 운동, 러·일 전쟁
5. 중국과 조선의 민족 운동
제1차 국·공 합작, 3·1 운동, 신해혁명과 몽골의 독립
6.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의 성립
7. 동아시아 영토 분쟁 : 쿠릴 열도 남부 4개섬(북방 4도)
8. 동아시아 협력 체제 모색 :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SPEC)

1. 신석기 문화(덧무늬 토기)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 초기에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가 나타났다. 이른 민무늬 토기는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덧무늬 토기는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집중 분포하고 있다. 덧무늬 토기는 시베리아와 헤이룽 강 중류, 연해주 남부, 일본 열도의 토기 문화와 서로 연결된다. 이후 만주와 한반도 북부, 시베리아 지역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졌다.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신석기 토기이다.

(천재교육 28쪽)

2. 청동기 문화(돌널무덤)

지배층의 무덤으로는 거대한 고인돌이 많이 만들어졌다. 고인돌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규슈, 만주의 랴오닝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시베리아에 기원을 둔 돌널무덤도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양식 중 하나이다.

(천재교육 30쪽)

3.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통합

..... 아울러 동서 교역에 관심이 많았던 칭기즈 칸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그 후 그의 후계자들은 남으로는 인더스 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대하였고, 서로는 카스피 해를 넘어 모스크바와 키예프를 점령함으로써 초원길마저 손에 넣게 되었다.

(천재교육 93쪽)

▼ 몽골 제국의 탄생



4.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열강의 중국 침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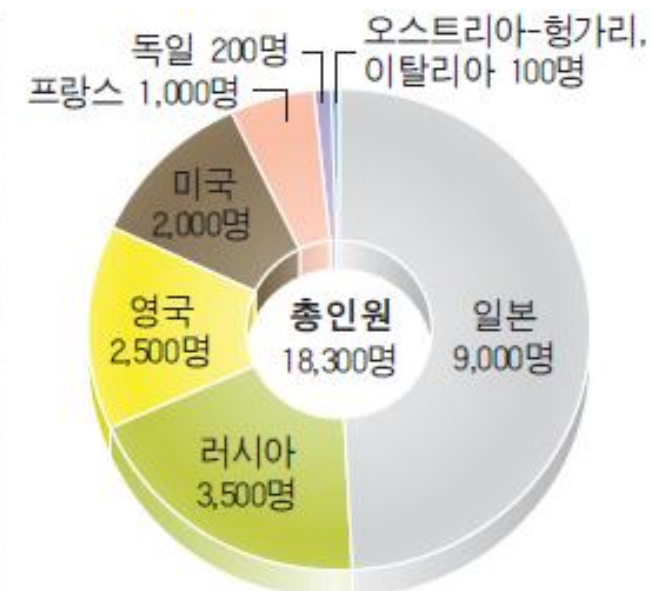
일본은 조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동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면서 일본의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걸었으므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러시아와 대립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은 청과 대등한 근대적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종속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천재교육 184쪽)

무술변법과 의화단 운동

청에서는 청·일 전쟁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개혁론(변법론)이 큰 힘을 얻었다. Kang 유웨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계몽 전제 군주를 모델로 한 변법론을 정치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1900년에 절정에 이른 의화단 운동은 '청 왕조를 도와 서양 귀신을 몰아내자 (부청멸양)'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크리스트교, 철로, 학교 등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중국 북부를 휩쓸 정도로 전개되었으나 서구 열강과 일본, 러시아 등 8개국 연합군의 직접 출병으로 진압되었다. 그 결과 청은 연합군과 신축 조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물고, 베이징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천재교육 185쪽)



(『근대 중국: 개혁과 혁명, 중화제국 마지막 왕조의 몰락』 下, 2004)

▲ 8개국 연합군 왼쪽부터 영국, 미국, 러시아, 인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일본군이다(인도는 영국에 포함됨.).

▲ 텐진에서 베이징 공격 때의 8개국 연합군 병력 중국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볼 수 있다.

(천재교육 185쪽)

대한 제국의 수립

을미사변으로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아관파천). 1년 후 고종은 환궁하여 대한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1897).....

러·일 전쟁과 일본의 한국 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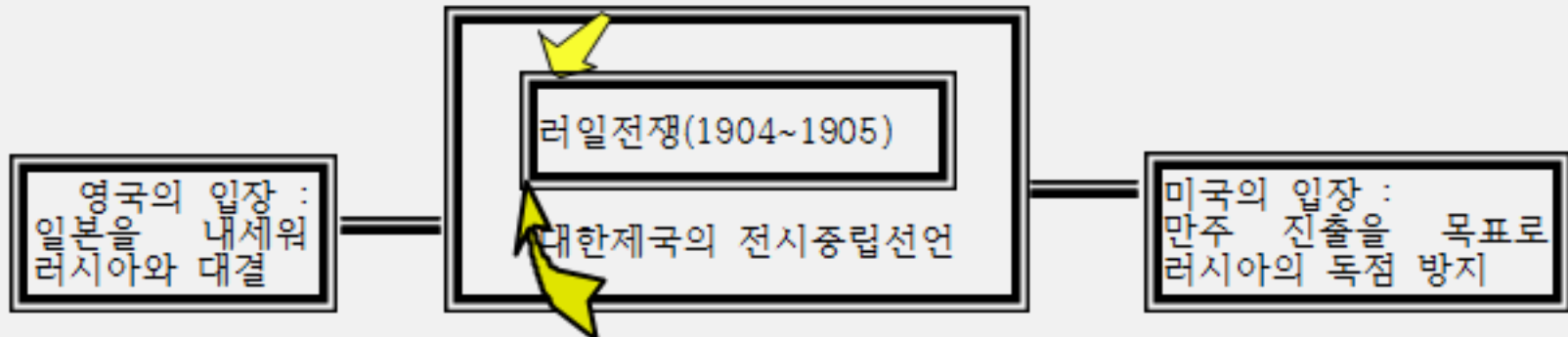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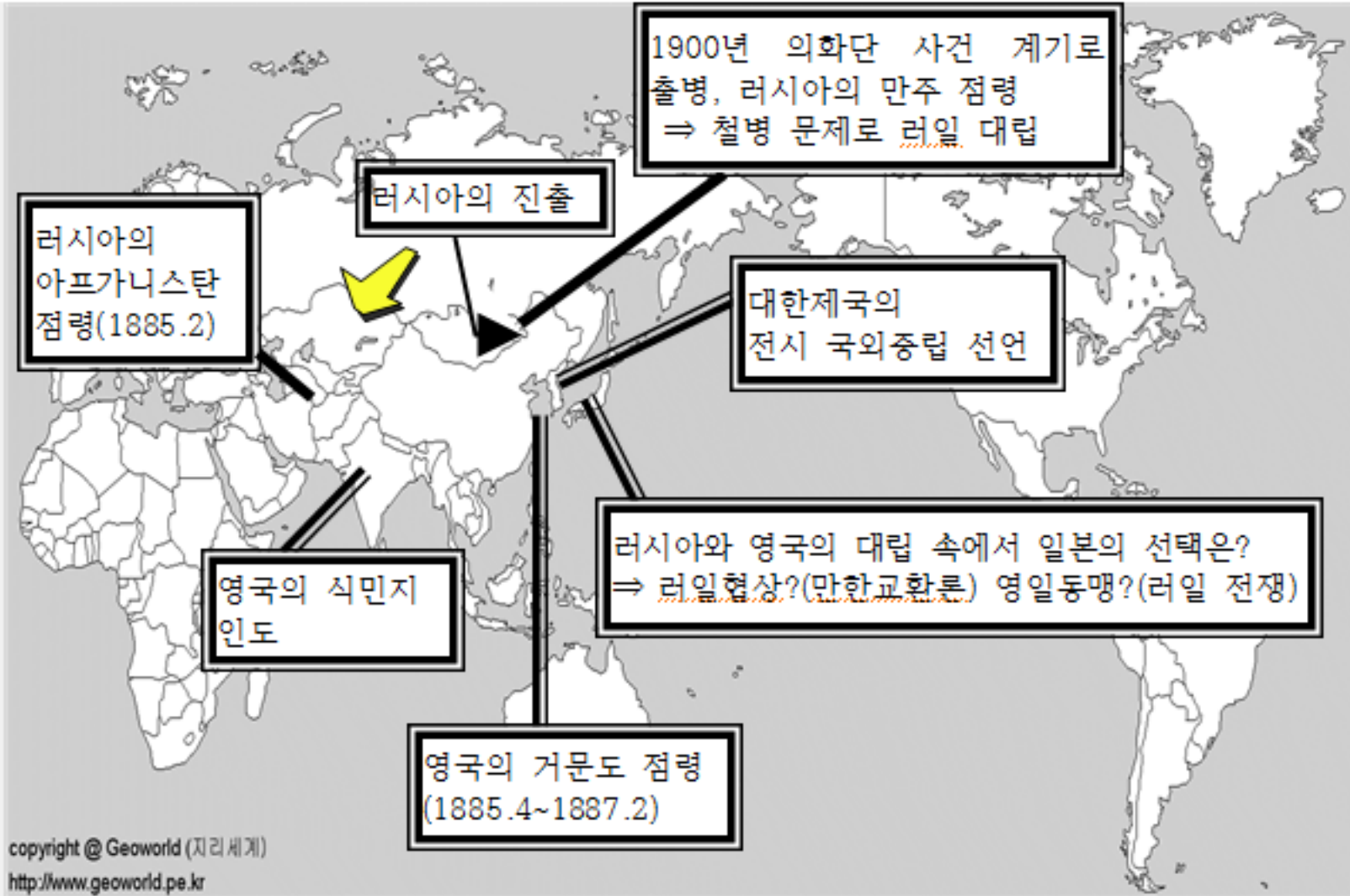
1902년,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서양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점차적으로 폐기하였다. 이후 제국주의 국가가 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1904년, 선제공격으로 시작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1905)을 맺고 한반도와 만주 지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은 중국에서 얻은 조차지인 뤼순·다렌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이용하여 만주로의 세력 확장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907년에는 몽골과 만주 및 한국을 나누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범위로 하는 러·일 협상을 체결하였다. (천재교육 186쪽)



▲ 러·일 전쟁의 전개

러·일 전쟁 관련 국제 관계

러시아의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랴오둥 반도 반환 → 러시아가
뤼순·다렌 차지(의화단 사건 이
후 만주 지배) → 한반도와 만주
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5. 중국과 조선의 민족 운동 관련

..... 5.4 운동 이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조직되면서 반제 민족 운동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확산된 사회주의 사상도 민족 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 다시 독립을 쟁취하였다.

소련의 지원 아래 중국 공산당과의 제1차 국공 합작(1924)을 이룬 중국 국민당은 혁명군을 조직하여 국민 혁명을 추진하였다.

대한 제국 몰락 이후 조선의 민족 운동가들은 항일 운동 기지를 만주와 연해주, 상하이, 베이징 등지로 옮겨 가며 운동을 계속하였다. 3.1 운동 이후 국내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민족 운동이 점차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천재교육 187~189쪽)

3.1 운동의 배경 중

-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패전국 식민지에만 해당
- 레닌의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 지원 선언

제1차 세계 대전의 뒤처리를 위해 모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했는데, 혁명을 이끈 레닌은 반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식민지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지 약소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

(미래엔 한국사 258쪽)

신해혁명과 몽골의 독립

몽골은 18세기 중반에 청에 정복되면서 남북으로 분할되어 통치를 받았다. 그러다가 신해혁명으로 청이 무너지자, 북몽골(할하 몽골 또는 외몽골)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그해 12월에 독립을 선언하였다(제1차 혁명). 그러나 중국의 반발로 러시아, 중국, 몽골 3자 협상에 의해 카흐타 협정이 체결되어 북몽골의 자주권(자치)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후인 1921년 담딘 수흐바타르가 혁명군을 조직하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 다시 독립을 쟁취하였다.

(천재교육 191쪽)

6.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의 성립

얄타 회담 관련

연합국의 승리가 굳어진 1945년 초에는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수뇌부의 회담이 열렸다. 그 결과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수행과 전후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합의되었으며, 소련의 대일 참전에 대한 비밀 협정도 체결되었다.

(천재교육 218쪽)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관련

한국에서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한다는 명분하에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이 실시되었다.

(천재교육 219쪽)

독일 패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는?

독소 전쟁에서 독일군이 러시아의 추위 때문에 졌을까?

독소 전쟁기 소련군은 일방적으로 밀리면서도 굽힘 없이 저항했다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소련의 전쟁 지도부가 능력 있는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연한 전투 기술을 터득했다는 사실, 후방의 소련 시민들이 혹독한 조건을 묵묵히 참고 기계를 돌려 군수품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 장정이 전선으로 떠나고 말을 징발당한 상태에서 농촌의 아낙네들이 사람 힘으로 쟁기를 끌어 곡식을 키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출처 :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리처드 오버리 저)

표 3.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소련이 입은 인명 손실

A: 군인 피해

동원 군인 총수	29,574,900
동원 인력 총수(기타 정부 부처 포함)	34,476,700
총 손실(사망/전쟁 포로/행방불명)	11,444,100
전사, 부상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	6,885,100
행방불명/전쟁 포로 총수	4,559,000
1941~1945년 사이의 사망자 총수	8,668,400
의학상 사상자 총수	18,344,148
부상/심리 장애	15,205,692
질병	3,047,675
동상	90,880

B: 민간인 인명 손실 추산*

소콜로프(Sokolov)	민간인 사망자 총수	16,900,000
코롤(Korol)	민간인 사망자 총수	24,000,000
코즐로프(Kozlov)	인구학적 총 손실**	약 40,000,000
쿠르가노프(Kurganov)	인구학적 총 손실**	약 35,500,000

* 모든 수치는 군인 사망자 수 8,600,000명을 뺀 수치들이다.

** 모든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민간인 사망, 그리고 사상(死傷)으로 비롯된 인구학적 성장 잠재력의 손실을 포함한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참가국	연합국 중 45개국 (미국, 영국 등)	배상 포기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베트남	배상(경제 협력, 무역)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서명 거부, 일·소 공동 선언(1956)으로 배 상 포기
비참가국	버마 연방	강화 회의 후에 배상 협정 = 경제 협력, 무역
	중화 인민 공화국	· 중·일 공동 선언(1972)에서 배상 포기 · 타이완은 일본·타이완 평화 조약(1952) 에서 배상 포기
	대한민국	한·일 협정(1965)에서 유·무상 8억 달러 제 공(한국 정부는 배상적 자금이라 주장, 일본 은 독립 축하금과 경제 협력금이라 주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일본과는 아직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음.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책임과 피해국에 대한 배상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조약 체결에 중국, 남북한 등의 피해국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이 불참하는 등의 한계를 보임으로써 이후 관련 국가들의 국교 수립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천재교육 220쪽)

냉전과 동아시아의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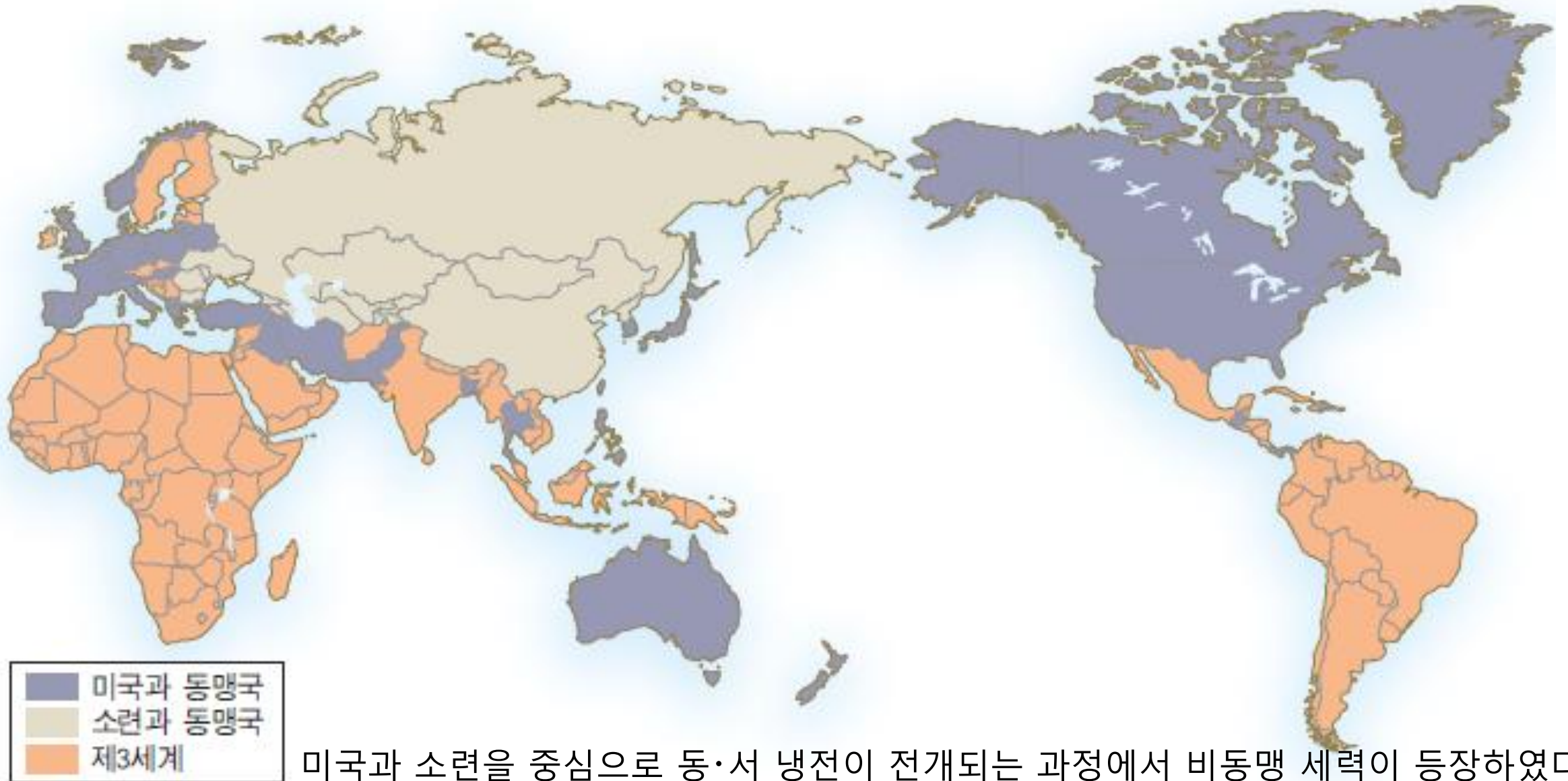
냉전 체제의 성립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연합군으로 협력하였던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유럽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한 동유럽의 공산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미국은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유럽 내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할 것을 선언하고,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도 점차 심화되었다. 미·소 대립을 축으로 하여 체제와 이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전후 세계의 국제 질서를 냉전 체제라고 한다.

(천재교육 221쪽)

동·서 냉전 아래의 세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동·서 냉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비동맹 세력이 등장하였다.

냉전과 동아시아의 전쟁

6·25 전쟁

북한은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중국에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자, 무력 통일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애치슨 라인 발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받아 낸 뒤에 본격적인 전쟁 계획을 세워 나갔다.

(천재교육 222쪽)

7. 동아시아 영토 분쟁

(천재교육 242쪽)

동아시아 영토 분쟁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수많은 작은 섬들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 1970년대 이후에는 바다를 둘러싼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양 영토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영토 갈등으로는 러·일 간의 북방 도서 분쟁, 중·일 간의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분쟁,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관련된 시사 군도(호양 싸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난사 군도) 분쟁 등이 있다.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일본 영토인 쿠릴 열도 남부의 4개 섬(북방 4도)을 점령하였다. 이후 소련이 일본에 2

개 섬을 반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4개 섬에 대한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차지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점령하여 통치하다가 1972년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사실이 알려지자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영토 갈등으로는 러·일 간의 북방 도서 분쟁, 중·일 간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관련된 시사 군도(호양 싸 군도)와 스프레톨리 군도(난사 군도) 분쟁 등이 있다.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일본 영토인 쿠릴 열도 남부의 4개 섬(북방 4도)을 점령하였다. 이후 소련이 일본에 2개 섬을 반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4개 섬에 대한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다.

등의 분쟁

08 밑줄 친 '북방 영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능교재
2014 수능특강
196쪽



▲ 일본 도쿄 역의 조형물 '북방 영토 찾는 날, 평화의 날'이라 쓰여 있다.

< 보기 >

- ㄱ. 청·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지배하게 되었다.
- ㄴ. 러·일 간의 협약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다.
- ㄷ.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러시아)이 통치하였다.
- ㄹ. 일본이 한국 정부에게 부당한 영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테마 2 심화 학습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

수능교재

2015 수능완성

131쪽

(가) 일본 및 소련은 양국 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회복된 후에 평화 조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계속할 것에 대해 동의한다. 소련은 일본의 요청에 응하여 아울러 일본의 이익을 고려하여 하보마이 군도 및 시코탄 섬을 일본국에 넘기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여러 섬은 일본과 소련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된 후에 현실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한다.

- 소 · 일 공동 선언 -

(나) 소련 정부는 극동에서의 평화 기구를 저해하고 소 · 일 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새로운 군사 조약이 일본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조치를 묵과할 수 없다. 이 조약은 사실상 일본의 독립을 상실시키며 일본이 항복한 결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금후 일본 영토에 계속 주둔하게 됨에 따라 하보마이, 시코탄 섬을 일본에 넘기겠다고 한 소련 정부의 약속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

- 소련 외상 각서 -

(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조인을 하지 않았던 소련이 1956년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발표한 소 · 일 공동 선언의 일부이다. 이 공동 선언에는 영토 문제가 중요 사항으로 취급되었는데, 평화 조약 체결을 전제로 하보마이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넘기겠다고 규정한 것이 주목된다.

(나)는 1951년에 미 · 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한 일본이 1960년에 새로이 미 · 일 안전 보장 조약(신안보 조약)을 체결한 데 반발하여 소련 외상이 일본 대사에게 보낸 각서의 일부이다. 소련은 일본이 미국과 새로운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상황을 이유로 소 · 일 공동 선언에서 규정하였던 두 개 섬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8. 동아시아 협력 체제의 모색

동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로는 평화 체제의 구축과 함께 기후 온난화, 황사, 원전 사고 등의 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떠오르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다자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1992년부터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동북아 환경협력 회의(NEASPEC)가 열리고 있다. (천재교육 247쪽)

- NEASPEC(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 한·중·일·러·몽골·북한이 참여하는 지역 환경협의체('93년 출범), 동북아 지역 내 환경 분야 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